선택 4·11 D-6

이곳이 뜨겁다 ▶ 순천·곡성

노관규·김선동 승부 '예측불허'

■ 민심 들어보니

이름	정채하(64·새)	노관규(51·민)	김선동(44·통)
기호	1	2	4
주요 경력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전 순천시장	18대 국회의원
주요 공약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예산 확보 ·산학 협력 일자리 창출 ·관광발전 도모 ·실버 박물관 조성	·정원박람회지원 특별법 제정 ·생태관광지원법 제정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 ·세계보건기구 인증 고령친화 도시 조성	·MB심판과 정권교체 ·노동이 행복한 대한민국건설 ·국가 책임 농정 실현 ·자연과 문화, 문화와 산업이 성장하는 곡성 건설

※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통=통합진보당

순천·곡성 선거구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순천시장을 지낸 노관규 후보가, 통합진보당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선동 후보가 나섰다. 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채하 후보가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순천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와 통합진보당의 이변을 점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했다. 50대의 개인택시기사 김모씨는 "정원박람회를 마치지 않고 시장직을 그만둔 노관규 후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노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보는 승객이 많다"고 전했다.

40대 택시기사인 이모씨도 "노관규 후보는 시장 중도 사퇴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 김선동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면서도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모(37·순천시 연향동)씨는 "중소상인을 챙기는 통합진보당 후보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김선동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노 후보, 30~40대는 김 후보를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구도심인 순천시청 부근에서 만난 조모(68)씨는 "노 후보가 시장 재직시 노인들을 공경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여서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반면, 신시가지인 연향패션거리에서 만난 한 30대 청년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의 인기가 많은 편"이라며 "친구들은 당만 보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순천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청년실업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극단적이지 않는 생각을 가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아직도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도 꽤 됐다. 조모(46·순천시 조례동)씨는 "다들 흠이 있어서 마땅히 투표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토론회나 유세를 지켜본 뒤 차분히 후보를 고르겠다"고 말했다.

일부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 표를 주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기고만장한 민주당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곡성읍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두텁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읍내에서 식당을 하는 40대 김모씨는 "곡성 출신 새누리당 후보가 있긴 하지만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손님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르신 세족식 민주통합당 박혜자 광주 서구 갑 후보가 4일 광천동 영락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노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풍 피해복구 민주통합당 이낙연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4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담양군 봉산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담양=나명주기자 mjna@

광주·전남 유권자 총 263만 4763명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는 4·11 총선 광주·전남지역 유권자가 총 263만4763명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 총 인구 수의 78.0%이며, 제18대 총선 선거인수 253만2328명에 비해 10만2435명이 증가한 숫자다.

성별로는 남성이 129만1526명, 여성이 134만3237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만1711명이 많았다.

광주에서는 광주 북구 을 선거구가 21만1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8만9267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에서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순천·곡성 선거구로 23만2827명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무안·신안 선거구로 9만9159명이었다.

한편 선거인명부에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 등에 의해 선거권이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최대 관심

■ 공약과 쟁점

관심 선거구인 만큼 공약경쟁도 뜨겁다. 새누리당 정채하 후보는 "순천과 곡성에 자연사박물관과 함께 실버 박물관을 조성, 미래 지향적인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관규 후보는 ▲한방의료 관광타운 및 헬스파크 ▲순천 문화의 전당 ▲도립사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을 공약하는 한편 "'생태관광지원법'을 제정, 순천 생태수도의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순천 원도심을 위해 공공형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만화 창작 타운, 한방뷰티 타운, IT공공 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역의 최대 관심은 2013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문제. 이 문제는 노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당시 서갑원 국회의원과 열띤 논쟁을 벌인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순천시의 재정에 맞게 박람회 규모를 축소하자고 주장했지만 노 시장은 국가 예산을 충분히 따오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반박했었다.

현재도 노 후보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선동 후보는 이에 소극적이다. 그는 다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2013년에 예정대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모에 맞게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채하 후보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 박람회 준비에 차질 없는 인프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 후보는 시장 중도 사퇴가, 김 후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이 각각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측은 "지난 1년간 현역 의원의 무능함을 봤으며 소수 정당으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도 직접 국회에 진출,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몸으로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 행위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치 현실을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관규 대 反노관규…곡성票에 달려

■ 판세 및 변수

민주당 아성이지만 노관규·김선동 두 후보 간 판세는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본보 여론조사에서는 노 후보가 45.0%의 지지율로 41.5%를 얻은 김 후보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3.5%포인트 차로 앞섰다.

민주당 후보가 독주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처럼 혼전인 것은 '당 대 당' 대결이 아닌 '노관규 대 반(反)노관규'의 대결 양상으로 선거구도가 형성됐기 때문.

이에 대해 노 후보 측은 "6년 동안의 시장 재임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걷다 보니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불러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김 후보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있는데다 순천고 동문회, 고흥군 향우회, 비정규직 노조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력에서도 시장을 지낸 노 후보 못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 후보 측은 선거 막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구에 편입된 곡성의 선택. 이 선거구의 전체 유권자는 23만2800여명인데 곡성 유권자는 이 중 11.3%인 2만6400여명이다. 곡성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 따라서 이곳에서는 노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불법이 이겨서는 결코 안 된다